

『에드워드 2세』: 오이디푸스적 비극

조 재 희

(영진전문대학교 / 강사)

Cho, Jaehee. *Edward II: Oedipal Tragedy.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7 (2020): 225-245. This article explores Edward II's transgressive nature in sex according to various Psychoanalysis perspectives including the Freud's description of the anal-sadistic phase of childhood. Edward's rebellion can be traced to the childhood anal-sadistic phase and various unconscious symptoms from castration anxiety originated in the transfer process from Imagination Order to Symbol Order by the Father's Law. The childhood anal-sadistic phase and castration anxiety make infants refuse to release their stool under parents' compulsion, assert their independence, and experience many Oedipal fragments like masochism, egocentrism and infantile rebellious instincts, and so on. Edward also expresses aggressively his obstinacy such as keeping love with Gaveston despite his nobles' objection. Edward's anal defiance(sadism) of authority(depression) is accompanied with various instinct's transformation such as primary narcissism, megalomania, masochism, and so on. Eventually Edward on anal-sadistic phase and Oedipal fragments suffers from the Oedipal conflicts between the body politic and body natural(his personal body). This situation leads to the pity of Edward and makes the audience observe his Oedipal tragedy. (Yeungjin University)

Key words: Psychoanalysis perspectives, Oedipal Tragedy, Freud, anal-sadistic, the body politic, the personal body, Edward

I. 들어가는 글

크리스토퍼 말로(Christopher Marlowe)¹는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2세(Edward II)의 생애를 왕의 등극시점인 1307년에서부터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로저 모오티머(Roger Mortimer)의 사형 시점인 1330년까지의

¹ 말로는 엘리자베스여왕(1533-1603)과 제임스 1세(1566-1625)의 통치하에서 일어난 인구성장, 경제적 유동성, 식자율의 증가, 종교개혁, 및 해외진출과 같은 국가의 여러 변화를 그의 극에 반영했다(Cho, Jaehee 225).

역사적 기간에 초점을 두고 이를 5막으로 압축해 재현했다(Comensoli 178). 극의 플롯은 에드워드가 개비스톤(Gaviston)과 스펜서(Spencer)와 같은 충신들을 사랑하여 국정에 소홀하고, 여기에 반기를 두는 귀족들과 왕비 이사벨라(Isabella)의 반역으로 최후를 비참하게 마친다는 역사적 사건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말로는 20년이란 시간을 5막으로 압축하지만 역사를 각색한 부분도 있다. 이를 테면, 극의 정치적 갈등을 다양한 배경에서 새로이 재현했다든가 혹은 개비스톤과 스펜서를 비롯한 가문의 출신 인물로 부각시킨 점, 에드워드 2세 사망 3년 후, 역사적 사건이었던 모오티머의 처형은 에드워드 사망 직후 일어난 것으로 각색된 점 등이 있다(강석주 7). 이러한 이유로, 말로의 『에드워드 2세』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이러한 말로의 『에드워드 2세』(*Edward II*)(1594)는 다양한 연구의 주제를 이끌었다. 에드워드의 죽음을 두고선, 왕의 동성애로 빚어진 국정 무능력의 탓이라든가 타락한 군주의 타자화의 문제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² 언급된 이와 같은 명분을 앞세워 권력에 굶주린 귀족들은 왕을 협박해 살해까지 한다. 전통적인 왕의 신성한 권리가 묵살되는 데 대해 말로는 왕의 두 몸에 대한 패러다임에 내재된 모순을 폭로한다. 많은 르네상스 극에서 함축된 왕의 자연스런 육체와는 분명히 다른 정치의 몸에 대한 메타포도 제안한다.

왕의 정치적인 몸의 맥락에서 나올법한 담론인 왕의 신성한 몸, 신성한 권리, 상속된 권리, 및 법에 대한 튜더왕조의 신념들은 『에드워드 2세』에서 시험대에 오르며, 군주 에드워드 2세는 그의 신뢰할 수 없고 자멸 행위의 수사 스타일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희화화된다. 에드워드의 연설은 일관성이 없고, 미숙한 짜증에서부터 부적절하고 극단적인 설득에 이르기

² 강석주의 「『에드워드 2세』 - 동성애와 정치적 욕망과 김성환의 「『말로의 에드워드 2세』에 나타난 제국주의 담론: 성, 계급, 정치」 참조.

까지 다양하다. 말로는 왕의 두 몸에 대한 튜더의 개념적 한계에 초점을 둔다. 왕의 총신들인 개비스톤과 스펜서, 그리고 왕에게 대적하는 모오티머와 귀족들보다도 왕권을 더 탈신비화시키는 존재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에드워드 자신인 셈이다. 언스트 칸토로위츠(Ernst H. Kantorowicz)가 그의 저서 『왕의 두 몸』(*King's Two Bodies*)에서 에드먼드 플라우든(Edmund Plowden)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에서 보듯이, 왕은 “인간적인 몸”(Body natural)과 “정치적인 몸”(Body politic)을 지닌 존재이다(7). 하지만 에드워드는 인간적인 몸의 나약함만을 보여줄 뿐, 정치적 몸이 지니는 신성한 권위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에드워드의 통치에서는 그가 상징했던 집단을 희생시켜 몇몇의 신하만을 사랑할 수 없음을 왕이 결코 이해 못하고 이에 저항하는 하는 일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에드워드 2세의 정치적 의무불이행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머천트(W. M Merchant)와 같은 비평가는 에드워드의 개인적 비극을 정치적 역사적 문제로 돌리지만 윌버 샌더스(Wilbur Sanders)는 그의 심리적인 문제로 돌린다(Comensoli 175 재인용). 개비스톤과의 비정상적인 성행위나 그의 나약한 심성으로 의무를 소홀해 왕이 죽임을 당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래된 왕의 정치적 몸, 강요된 이성애, 및 엄격한 법의 수호와 같은 의무를 주장하는 가부장제가 더 이상 지지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사회로부터 조성된 동성애공포(homophobia)로 인해 왕의 동성애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이도 있다(Comensoli 180).

시대적으로 집단의 가치에서보다는 말로는 에드워드 개인의 욕망과 억압에 초점을 두고 튜더왕가의 역사를 극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코멘솔리는 말로가 에드워드의 성 심리정체성과 그의 정치적 권위 간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심리적으로 구성하는데 방점을 두었다고 주장한다(180). 말로가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하는 심리적 오이디푸스적 드라마로 역사를 재구성한 점 또한 흥미로운 일이다. ‘아버지의 법’(Father’s Law)에 따라서 가

부장적 질서로의 입문을 상징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에드워드에게는 분명 파편적인 충동이 남아있었다. 에드워드 주체는 그 누구보다도 더 혹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었으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비비아나 코멘솔리를 비롯한 여러 정신분석적 비평가들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에드워드 2세의 동성애적 주체를 정신분석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에드워드의 동성애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왕의 고통을 공감하는 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하게 된다.

II. 본 론

코멘솔리는 에드워드가 심리적으로 아버지로 향한 남자 아이의 양가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적인 오이디푸스적 충동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아버지와의 동일시감정을 가지는 반면 그를 제거하고픈 마음을 지닌다는 프로이트의 내용이다(184). 정신분석적 설명에 따르면,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를 통해 가부장제의 아버지의 법인 상징질서로의 주체진입과정에서 유아는 상징적 거세를 경험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소외라든가 박탈감 내지는 신경증, 강박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게 된다. 결국 상징질서로 귀속되지 않은 파편적인 충동이 무의식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우선 코멘솔리는 에드워드가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개비스톤을 좋아하고 아버지의 권력을 전복하려는 의도로 정치적 책임을 무시한다고 해석한다(184). 이와 비슷한 정신분석적 맥락에서 존 서갈(Jon Surgal)은 5막으로 압축된 극의 시간이 프로이트가 정의내린 유아의 항문 가학증 단계의 기간과 유사하다 주장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존 서갈은 에드워드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 시점을 그의 상징적 출생으로 기준 삼아 에드워드를 항문 가학증 단계에 있는 원형으로 분석한다(182). 콘스텐스 큐리야마

(Constance Brown Kuriyama) 또한 에드워드의 약함이나 고집이 어린아 이와 같은 것이라 주장하며 이러한 특성을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고찰해 두었다(182). 이들의 분석 내용은 결국 에드워드가 상징질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남은 파편적인 충동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갈도 프로이트의 설명을 인용했지만 필자는 이를 더 포괄적으로 설명 하고자 한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천국과 같은 품을 떠나 언어습득과 생활 규칙을 학습해야 하는 상징계로 진입한다. 강압적인 아버지의 법이 정한 규율을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완전히 배설하는 것을 거부하고 여러 차례 배설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쾌락과 같은 것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아이들 경우 항문 성감대가 강하게 발달하여 특이한 성적 체질을 형성한다. 주로 생식기, 입, 항문, 요도와 같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신체의 부위는 성감대로 불리며 이곳이 일정하게 존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신체의 일부 중 한 곳만 성생활로 사용되며, 나머지 부분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과정을 ‘승화’라 부른다. 5세에서 약 11살까지의 시기를 성적 잠복기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수치심, 역겨움, 도덕성과 같은 “반동 형성(reaction formations)”이나 저항심이 생기게 된다. 항문 성애가 바로 이러한 저항심에서 나온 결과로 본다. 특히 항문 성애자는 깔끔함, 인색함, 완고함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Character and Anal Eroticism” 167-75).

에드워드 2세가 바로 ‘완고함’의 반응특성에 적용된다. 프로이트는 동성애자들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성인이 된 후에도 항문 성감대를 유지하는 이들에게선 눈에 띄는 정도의 ‘항문성격’(anal character)을 찾아보긴 힘들다고 밝힌다(175). 이러한 맥락에서 에드워드는 성인항문 성애자로서가 아니라 대변 배설을 거부함으로써 아버지의 법으로부터 자신의 독립을 주장하는 항문 가학증 단계에 집착한 영원한 아이를 상징하는 듯하다. 극에서 에드워드가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고집을 피우는 측면은 개비스톤을 향한 반항적 애정이라든가 개비스톤의 사망 이후 스펀서를 애정

대상으로 삼는 일에서 혹은 왕좌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일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외에도, 그는 왕비 이사벨라를 성적으로 거부하며 귀족들의 호의도 거부한다. 에드워드의 항문 가학증은 그에게 부과되는 구속에 대한 저항의 행동으로도 상징된다. 저항, 보유, 및 가학적(sadistic) 요인들을 특성으로 하는 항문성격 외에도 에드워드가 아버지의 법에 반항하는 그의 무의식적 파편에 관한 다양한 심리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에드워드 2세는 극에서 부모와 사회적 억압적 힘에 대해해 초기의 독립과 자기주장을 확립하려 고군분투한다. 개비스톤의 추방 명령을 내린 부왕과 교회 및 국가는 에드워드 2세와 극의 초반에서부터 대치하는 상황이다. 큐리아마는 에드워드가 타자인 개비스톤과의 이별을 경험하는 일을 일련의 상징적 거세로 해석한다(195). 이안 맥애덤(Ian McAdam)은 에드워드가 오이디푸스적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나르시시스적 상태로 남아 있다고 본다(205).

개비스톤과의 첫 이별로 상징적 거세를 당한 에드워드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처음 한 일은 추방당한 개비스톤이 돌아오는 길에 집결한 군대와 대치하는 것이었다. 공권력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항문 가학증을 내보인다. 누가 무엇이라 하든 “나는 내 뜻대로 하고 말리라”(I'll have my will)(1.1. 77)³라며 자신의 마음 다짐을 굳건히 한다. 이에 질세라 조카 모오티머는 “선왕께서 임종하실 때 그 자가 결코 이 왕국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겠노라고 맹세를 하였나이다”(Were sworn onto your father at his death/ That he should ne'er return into the ralm;)(1.1. 82-3)라며 기세등등하게 맞선다. “감히 짐에게 대적하겠다는 겐가?”(Beseems it thee to contradict thy king?)(1.1. 91)라며 에드워드는 왕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짐은 개비스톤을 곁에 둘 것이니라”(I will have Gaveston;)(1.1. 95)며 계속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다. 마침내 “귀족들과 한바탕 전투를 벌여야겠다,/ 이대로

³ 크리스토퍼 말로. 김성환 역. 『에드워드 2세』에서 인용함.

죽을 것인지 아니면 개비스톤과 함께 살 것인지 결판을 내야겠다.”(I'll bandy with the barons and the earls,/ And either die or live with Gaveston.)(1.1. 136-7)는 최종적인 발언으로 이 대처의 상황은 정리된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에드워드 2세를 두고 “개비스톤에 대한 애정에 매달림으로써 군주로서의 위상과 자격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로 제시된다”(강석주 11)고 하는데 이 또한 그가 억압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항문 가확징후의 맥락에서 본다면 공감이가는 견해이다.

에드워드는 개비스톤을 콘월 백작(Earle of Cornewall)이자 맨(Man)섬의 총독으로 임명하는데 이는 너무도 과분한 처사였다. 개비스톤의 벼락출세에 귀족들은 불만을 갖게 된다. 말로 극의 귀족들은 신하로서 군주에게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의무에 입각한 애정과 복종에서 벗어나 오히려 군주에게 자신들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한다(Summers 224). 매튜 프로서(Matthew Proser)는 귀족들을 에드워드 2세의 “대리부의 인물”(surrogate father figures)로 상징해 에드워드가 그들로부터 거세의 분리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22). 그러므로 개비스톤에 대한 에드워드의 선의는 그의 마조히즘적 방어성향에서 비롯된 셈이다. 글린 윅햄(Glynne Wickham)은 에드워드를 철저한 “동성애 마조히스트”(thorough-going homosexual and masochist)라 칭한다(Proser 17 재인용).

에드워드는 이어 그의 명령에 반기를 드는 코벤티리(Coventry) 주교를 런던탑으로 호송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극한의 행동을 감행한다. 에드워드의 강경한 행동에 못지않게 캔터베리(Canterbury)대주교와 귀족들은 개비스톤을 체포한다. 여기에서 에드워드는 귀족들의 억압에 “자 모오티머, 경이 과인의 왕좌에 앉게./ 워릭과 랭카스터, 그대들이 과인의 왕관을 쓰도록 하계./ 일찍이 국왕이란 자가 이같이 과인처럼 위압당한 적이 있었는가?”(Here, Mortimer, sit thou in Edward's throne;/ Warwick and Lancaster, wear you my crown. /Was ever king thus overruled as I?)(1.4. 36-8)라며 대항한다. 미탈리 패티(Mitali R. Pati)가 지적한 것처럼

럼 “에드워드는 법치 국가에 대한 왕의 정치적 몸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Edward’s problems with his people and England’s laws illustrate the popular Tudor association of the theory of the body politic with lawful government)(159). 피셔와 주니(Rechar E. Fischer and Samuel Juni)는 프로이트가 밝힌 항문성격에서의 특성 외에도 많은 징후가 항문발전단계에서 나타난다고 한다(65-7). 이 중에서 피해망상(persecutory delusions)을 언급하는데 이것이 에드워드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증상은 에드워드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권위에 대한 책임을 없게 하는 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징후의 맥락에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에드워드의 협박은 과장되고 실행불가능하며 유아적 과대망상(Megalomania)이다. 즉 가학적 항문기를 앞서거나 이를 알리는 전지전능함에 대한 아이의 환영을 뜻한다(Surgal 194). “사랑하는 개비스톤과 헤어지기 전에,/ 이 섬은 대양을 표류하다/ 인적이 드문 인도를 향해 흘러갈 것이오.”(Ere my sweet Gaveston shall part from me,/ This isle shall fleet upon the ocean/ And wander to the unfrequented Inde.)(1.4. 48-50)로 시작한 반감은 왕으로서 사제에게 왜 복종을 해야 하나며 로마교황에 반하는 언사에 이르기까지 서슴지 않고 나아간다.

에드워드. 네놈들의 미신으로 가득찬 촛불로,
네놈들의 적그리스도 교회들을 밝히지만,
나는 네놈들의 사원에 불을 질러 파괴시켜
성당의 탑이 산산히 부서져 내려 비천한 땅바닥에 입
맞추게 하고

EDWARD. With these thy superstitious taperlights,
Wherewith thy antichristian churches laze,
I'll fire thy crazed buildings, and enforce
The papal towers to kiss the lowly ground,
(1.4. 98-101)

종교적 비난에서 사용된 에드워드의 수사적 표현은 과격하고 과장되는데 이 또한 유아적 과대망상에 기인한다.

에드워드의 가장 감동적인 애정 표현에서도 과장되고 고집스러운 면이 보인다. 특히 개비스톤을 추방하라는 서류에 신하들이 서명을 강요할 때이다. 온 세상이 그토록 미워하는 자를 어찌하여 사랑하느냐는 물음에 에드워드는 “그는 온 세상보다는 과인을 더 사랑하기 때문”(Because he loves me more than all the world)(1.4.77)이라고 대답하고 “잉크 대신 과인의 눈물로”(Instead of ink, I'll write it with my tears)(86) 서명한다며 비통해한다. 큐리야마는 에드워드의 타자인 개비스톤에 대한 에드워드의 행동이 자기중심적이다 라고 밝힌다(184). 사이먼 셰퍼드(Simon Shepherd)는 동성에게 성적 관심을 보이는 것은 통치자로서의 일탈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에드워드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78)고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유아의 고통스런 분리과정에서 나오는 거세공포의 불안 심리에 기인한다(Kuruyama 195).

유아의 과대망상이 권위에 대한 책임감 없이 궁극적인 권력에 대한 환상을 통합하기도 하며 또한 반항에 고집스럽게 바쳐진 왕의 삶의 이상(비정상)을 해결하는 데 대한 또 다른 논쟁을 제공한다. 에드워드의 실행 불가능한 위협과 요구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과장된 평가이지만 모오티머는 권력을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적 관점에서의 선택이라든가 여왕과의 계산된 관계에서 볼 수 있다. 반면, 에드워드는 카섹시스(cathexis)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성적 대상과 성적 목적을 동일시하는 행위이다(Surgal 195). 성적 대상에 성적 감정이나 에너지를 집중하는 무의식적 상태이다. 그는 그의 총신들을 아끼는 인물이었다. 말로우는 개비스톤이나 영 스펜서와 같은 인물들을 과대평가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에드워드의 낭만적인 애정은 기본적으로 자기에적(narcissism)이다. 큐리야마 또한 에드워드가 강렬한 자기에적 열정에 고착되어있다고 본다(182).

추방당한 후 돌아온 개비스톤이 에드워드에게 무릎을 꿇으며 인사를 하

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나?/ 바로 그대의 친구, 그대 자신, 개비스톤의 분신 아닌가!”(Knowest thou not who I am?/ Thy friend, thyself, another Gavestn!)(1.1. 141-42)라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개비스톤이 추방당하자, “짐은 그대 자신으로부터 추방되었네.”(I from myself am banished)(1.4. 118). 그리고 “개비스톤을 미워하는 자는 과인을 경애하지 않는 거다.”(they love me not that hate my Gaveston)(2.2. 37)라며 자신과 개비스톤을 동일시하는 자기애에 탐닉한다.

개비스톤의 추방 문제를 왕비에게 부탁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에드워드의 권위에 대한 귀족들의 공격은 개비스톤에 대한 염려보다 더 중요하다. 에드워드의 유아 과대망상은 비유적으로나 말 그대로 절정에 다다른다. “분노로 내 심장이 부풀어 올라 터지겠도다!/ 이 귀족들에게 종종 괴롭힘을 당했거니와,/ ... 에드워드, 그대의 그대의 앞발을 뺏쳐/ 그자들의 선혈로 그대의 굶주린 분노를 채워라.”(My swelling heart for very anger breaks!/ How oft have I been baited by these peers/ ... Edward, unfold thy paws/ And let their lives' blood slake thy fury's hunger.)(2.2. 199-200, 203-206)며 자신의 분노를 극도로 표현한다. 또한 “저 완고한 귀족들은 짐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니라.”(The head-strong Barons shall not limit me)(2.2. 259)며 간결한 말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의 행동은 유아적 반항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내 심장이 부풀어 올라’에서는 해부학적 이미지러가 암시되며 에드워드의 고통에 동기부여가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완고한’(head strong)이라는 표현에서는 그의 욕구를 억압하려는 귀족들의 시도를 가늠할 수 있다. 전통적인 관계에서의 국가와, 왕의 정치적인 몸 간에 도착성이 있음이 암시된다. 즉 왕과 권위에 대한 반항에 맞서야하는 에드워드의 아이러니한 지위를 생각나게 한다(Surgal 184).

결국 워릭(Warwick)과 모오티머에 대한 내전은 발발하게 되며 에드워드는 전투에 당당히 임한다. 하지만 반역한 귀족들이 개비스톤을 죽인 것

을 알게 되며 “짐은 그를 위하여 놈들의 머리와 목숨을 취할 것이다.”(I will have heads and lives for him)(3.1. 132)라며 강경한 응징을 선포한다. “어찌하여 퇴각 신호를 울리는가? 경들 놈들을 공격하라!/ 오늘 과인은, 무장봉기하여/ 자신들의 왕을 대적하는 저 오만한 역적들에게,/ 칼로써 복수를 쏟아 부을 것이다.”(Why do we sound retreat? Upon them, lords!/ This day I shall pour vengeance with my sword/ On those proud rebels that are up in arms,/ And do confront and countermand their king.)(3.2. 1-5)에서는 왕의 권위가 부당하게 훼손당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설파한다. 하지만 모오티머에게 “아아, 모든 역적 놈들아! 이처럼 무시당하느니,/ 잉글랜드의 문명화된 마을을 거대한 돌 더미로 만들고/ 쟁기들이 짐의 궁정 성문을 갈아엎으리라.”(Ay, traitors all, rather than thus be braved,/ Make England’s civil towns huge heaps of stones/ And plows to go about our palace gates.)(3.2. 30-33)라고 말한 부분은, 워릭의 “무모하고도 기이한 결심이로군”(A desperate and unnatural resolution.)(3.2. 34)의 반응에서처럼 에드워드의 군주로서의 무책임과 냉정함을 내비친다. 결국 자신의 감정에만 몰입해있는 셈이다. 특히 자기 연민을 공격적인 언어로 표현하는데 목적을 둔 자기 중심적 행동이다(Kuriyama 187). 코멘솔리는 에드워드의 이러한 자기 연민적 언어 공격을 그의 마조히즘적 고통으로 해석한다(186). 프로서의 설명에 따르면 마조히즘은 사디즘과 마찬가지로 활동성이나 위험 혹은 에너지를 요해서 전혀 수동적이진 않다고 한다(17) 여하튼 에드워드는 자기에로의 몰입상태이다.

개비스톤이 잡혀 죽임을 당한 후 에드워드의 성적 대상이 사라지지 않고 스펜서로 옮겨간 것은 에드워드의 향문 새디즘 증후로 해석이 가능하다. 에드워드는 개비스톤에 대한 에드워드의 애도는 곧 스펜서로 옮겨져 그를 자신의 총신으로 대체한다. 에드워드는 향문 저항에 대한 그의 분노로 개비스톤의 무리에게 유혹을 받고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게 된다

(Surgal 184). 그는 귀족에게 대항하기 위해 개비스톤의 목숨을 잃어버리면서 다른 하나를 위해 하나를 희생한 셈이다. 프로이트는 성적 대상이 궁극적으로 성적 목표와는 독립적이며, 이는 성적 대상의 부재를 고집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를 보더라도 개비스톤의 죽음은 에드워드에게 명분을 남기지 않았다(Surgal 185 재인용). 명분은 에드워드 자신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그 자신의 반항적인 향문 가학증에 기인한다. 프로서는 개비스톤의 죽음 또한 에드워드에게는 상징적 거세를 의미한다고 본다(21).

에드워드는 귀족들의 사형을 명령내리지만 모어티머는 제외시켜 투옥시킨다. 모어티머와 여왕 이사벨라의 연합은 에드워드와 그의 아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억압적인 부모역할을 상징한다. 에드워드는 그의 군의 승리를 억압에 대한 승리로 즐긴다. “그리하여, 수많은 격전의 위협을 겪은 후,/ 잉글랜드의 국왕 에드워드는 동지들과 함께 승리를 거두노라./ 과인과 동지들이 적의 억압에서 벗어나 승리를 거둘 수 있길.”(Thus, after many threats of wrathful war,/ Triumpheth England’s Edward with his friends;/ And triumph Edward with his friends uncontrolled.)(4.3. 1-3)주장하지만 이 승리의 기쁨은 잠시, 모어티머가 탈옥을 한 후 프랑스에서 여왕과 합세해 에드워드를 패배시킨다.

체포당시 에드워드가 사용한 언어의 이미저리는 해부적이며 파괴적이다. “그렇다면 레스터가 이사벨라의 이름으로 과인에게서/ 내 목숨과, 내 일행을 앗아가려고 온 것인가?! 자, 이보게, 내 친구들을 구해주고/ 그 대신 이 혈떡이는 내 가슴을 갈라서, 내 심장을 가져가도록 하라!)(Comes Leicester, then, in Isabella’s name/ To take my life, my company from me?! Here, man, rip up this panting breast of mine,/ And take my heart in rescue of my friends!)(4.7. 64-7). 에드워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식한다. 여기에서도 타자인 친구들과의 상징적 거세에 대한 두려움을 자기 파괴적인 언어로 보인다. 나아가 “플루토가 과인의 죽음을

알리는 조종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고,/ 마녀들이 카론 강가에서 내 죽음을 위해 울부짖게 하라,”(Let pluto’s bells ring out my fatal knell/ And hags howl for my death at Charon’s shore,)(4.7. 89-90)며 예언적이고도 음조를 갖춘 신화를 활용한다. 하지만 격렬하고 자기 파괴적인 유아적 언어는 에드워드의 과도한 감정에 기인한다.

결국 에드워드는 킬링워스(Killingworth)성에 투옥된다. 여기에서 에드워드는 “그러나 당당한 사자가 피를 흘리게 되면,/ 분노한 사자는 상처 난 곳을 발톱으로 핏줄이 휘고 쥐어뜯고, /미친한 대지가 자기의 피를 마시는 걸 지극히 경멸하면서/ 허공으로 뛰어 오른다네.”(But when the imperial lion’s flesh is gored,/ He rends and tears it with his wrathful paw,/ And highly scoring that the lowly earth/ Should drink his blood, mounts into the air.)(5.1. 11-4)라며 마조히즘적 왕의 분노만 보여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항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왕좌(왕관) 쪽으로 자신의 보존 욕구로 향한다. “짐은 양위하지 않겠다. 목숨이 살아 있는 한, 짐은 왕이니라!”(“I’ll not resign, but whilst I live, be king!”)(5.1.86) 강경하게 거부한다. 오토 페니첼(Otto Fenichel)은 에드워드의 이러한 행동에 고집과 항문 보유성향이 결합되어 있다고 해석한다(Kuriyama 186 재인용).

프로이트는 황금과 변 간의 심리적 신화적 및 언어적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밝히고(“Character and Anal Eroticism” 172-75) 황금과 변을 동일시하는 항문 성애적 변형을 설명한다. 이를 테면 변과 돈, 재능, 아기나 남근이 즉흥적인 생각, 환상 및 징후와 같은 무의식의 결과물과는 서로 구별이 되지 않아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고 기술한다(“Transformation of Instinct in Anal Eroticism” 128). 항문 성애의 예로 본 본능의 변형을 설명한 바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이는 변을 자신의 첫 선물로 간주하며 이러한 변은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남근과 아이로 본능적인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의 심리적 대체물인 돈(황금)은 아이

에게 보낸 옥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드워드가 왕관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계속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을 거부한다. “너희들은 왕의 분노가 두렵지 않느냐?”(What, fear you not the fury of your king?)(5.1. 75)라며 양위를 거부한다. 하지만 레스터(Leicester)가 “저들이 그냥 돌아가게 되면, 세자께선 왕위 계승권을 상실하게 되옵니다.”(For if they go, the prince shall lose his right.)(5.1. 92)라는 말을 하자 왕관을 넘겨준다. 하지만 퇴위하는 것이 억압에 대한 에드워드의 궁극적인 복종을 알리는 게 아니다. 모든 것들을 박탈당한 에드워드는 그의 목숨에 집착한다. 에드워드에게 왕관의 착용은 그가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대상의 선택을 빼앗긴 에드워드는 프로이트가 언급한 “일차적 나르시시즘(primary narcissism)”(Surgal 195 재인용)의 상태가 된다. 어머니에 대한 고착을 대체하는 첫 대상, 그리고 후속적인 선택들의 기본을 박탈당한 상태로 모든 즐거움을 오롯이 자기 내부에 원천을 두고 있는 단계이다. 즉, 상징계의 억압을 감당 못해 상상계로 후퇴하는 병적인 징후이다.

지하 감옥에서의 에드워드의 한탄은 항의에 가깝다. 과도한 감정적 배설의 언어이다. 그런 탓에 관객들에게 동정을 유발하는 하는듯하지만 내면적 통찰이나 각성이 없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하 감옥 안에 잉글랜드의 왕인 과인이 감금되어서,/ 영양실조로 인해 굶주리고 있다./ 과인이 매일 먹는 음식은 가슴이 미어지는 흐느낌인데,/ 그게 내 가슴 깊은 곳을 갈가리 찢어놓았다.”(Within a dungeon England’s king is kept,/ Where I am starved for want of sustenance./ My daily diet is heartbreaking sobs,/ That almost rents the closet of my heart.)(5.3. 19-22)라며 유아의 자기 파괴적인 언어에 몰입한다.

신세를 한탄하는 에드워드가 흙탕물로 세수를 받고 수염이 밀리는 과정에서 잠시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 큐리아마의 설명에 따르면 수염은 에드워드의 남성성을 상징해주던 기표였으며 그의 항문과 입은 오물로 고

통 받게 되며 음식의 영양과 수면을 박탈당한다(196). 에드워드는 두려움에서 자신의 목숨에 집착하는 게 아니다. 잠시 반역의 결과로 이르게 된 제단에서 친구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영혼을 빌어달라는 주문을 하게 된다.

에드워드. 오 자신들의 군주요 지배자인 잉글랜드의 왕을 학대하는
이 무도한 놈들에게 일제히 당신의 눈길을 돌리소서!
오 개비스톤 내가 부당하게 학대를 당하는 건 그대 때문일세.
나를 위해 그대와 스펜서 부자가 죽임을 당했으니,
나도 그대를 위해 백 번 천 번이라도 학대를 달게 받아야지.
스펜서 부자의 혼령들이여, 어느 곳에서 지내고 있든지
내 영혼을 위해 빌어다오, 그러면 아아, 그대들을 위해 나도 죽
을 테다.

EDWARD. O level all your looks upon these daring men,
That wrong their liege and sovereign, England's king.
O Gaveston, it is for thee that I am wronged;
For me both thou and both the Spencers died,
And for your sakes a thousand wrongs I'll take.
The Spencers' ghosts, wherever they remain,
Wish well to mine; then tush, for them I'll die.

(5.3. 39-45)

상징적 거세를 의미했던 친구들과의 이별과 그들에 대한 애도의 모습을 진심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모어티머와 여왕에게 에드워드는 수용되기를 거부한다. 마트레비스(Matrevis)의 표현 “거니, 왕이 죽지 않는 게 놀랍군./ 오물이 무릎까지 차는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말일세./ 성의 하수가 다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고,/ 거기에서 습기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데도 말이 지./ 그 독기를 들이마시면 누구라도 죽게 마련인데.”(Gurny, I wonder the King dies not,/ Being in a vault up to the knees in water,/ To which the channels of the castle run,/ From whence a damp

continually ariseth/ That were enough to poison any man,)(5.5. 1-6)의 말대로 에드워드는 그의 정신과 건강에 해롭고도 잔인한 감금 상태에 처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육체는 “더러운 오물”(5.3.26)범벅의 상태이다. 그가 감금된 토굴은 성의 하수구이다. 에드워드의 삶은 자궁으로부터의 탈출을 상징하는 왕위 계승에서 시작되어 자궁과 같은 성의 하수구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 루 안드레아 살로메(Lou Andreas-Salome)가 밝히듯이, 어린이들은 신체의 배설장소와 음부를 구별하지 못하며 아이들은 대변이 나오는 창자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주로 믿는다. 모어티머와 여왕은 에드워드의 배설물을 그의 코에 비빈다. 자신의 억압에 대한 힘으로 사용했던 에드워드의 항문은 아이러닉하게 자신에게 역사용 된다(Surgal 187 재인용).

홀린셰드(Raphael Holinshed)도 원전에서 에드워드의 최후를 설명해두었지만 그 어떤 작가도 말로우 만큼 경악스럽게 묘사한 이는 없다. 모어티머는 에드워드 왕을 살해할 목적으로 라이트본(Lightborn)을 고용한다. 라이트본은 은밀한 암살에서 자신이 자랑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꽃에 독을 발라서 독살하는 법, ... 혹은 입에다 수은을 흘려 넣는 법”(how to poison flowers,/ ... Or open his mouth, and pour quicksilver down.)(5.4. 29, 35)을 배웠으며 청부살인에 자신감을 보이는데 “하지만 소인에게 이런 방법들보다 더 멋진 살해 방법이 있습니다.”(But I have a braver way than these.)(5.4. 36)라며 은밀한 운을 띄운다. 그 ‘braver way’에서 성적인 보복성의 뉘앙스가 암시된다. 큐리아마는 “항문 겁탈”(anal rape)이라는 표현으로 그 보복성의 본질을 설파한다(194).

라이트본은 마트레비스에게 “쇠꼬챙이를 갖다 주시오, 별경계 불에 달궈서 말ियो.”(And get me a spit, and let it be red-hot.)(5.5. 30)라고 한다. 그것 외에 “탁자와 깃털 침대.”(A table and a featherbed.)(5.5. 33)도 준비 시킨다. 이러한 상황을 감지라도 한 듯 에드워드는 슬퍼하는 척하는 라이트본에게 자신의 부당한 처지를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에드워드. 그리고 너의 심장소리를 들어보아라. 너의 심장은 거니의
심장이나 마트레스의 심장처럼, 코카서스 산에서 잘라낸
듯이 철석같다 해도 과인이 미쳐 이야기를 마치기도 전에
녹아버릴 것이다.

EDWARD. And then thy heart, were it as Gurney's is,
Or as Matrevis', hewn from the Caucasus,
Yet will it melt ere I have done my tale.

(5.5. 52-4)

여기에서도 에드워드의 과장된 언어의 수사적 표현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 또한 라이트본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의 미성숙함을 보여 줄 뿐이다. 에드워드는 살해를 직감한 듯 “마침내 과인이 목숨을 잃는 순간일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더 굳건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말이다.”(That even then when I shall lose my life,/ My mind may be more steadfast on my God.)(5.5. 76-7)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에드워드가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의 자기애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자기애로 향한 집중은 에드워드가 권위에 도전하면서 소유한 마지막 선물인 보석으로까지 이어진다. “오, 만일 네가 과인을 살해할 생각을 품었거든,/ 부디 이 선물이 네 마음을 바꾸게 하고, 네 영혼을 구해주길.”(O, if thou harbour'st murder in thy heart,/ Let this gift change thy mind, and save thy soul.)(5.5. 86-7)부탁하면서 보석을 건네준다. 이러한 행동은 향문성격의 소유자들이 하는 것으로 그들은 향문이 자신을 잡은 이들로부터 보석을 숨겨놓기에 적절한 장소임을 알고 있다(Surgal 190).

하지만 라이트본은 이미 준비된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에드워드를 관통시켜 살해한다. 패트릭 체니(Patrick Cheney)는 이 장면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남색의 범죄를 처벌하고자 하는 재현으로 해석한다(85-86). 패

티는 불에 달군 쇠꼬챙이가 함유한 팻릭적 상징은 결국 왕이 그의 과도한 열정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게 됨을 보여준다고 한다(170). 에드워드는 “오 나를 죽이지 말아다오, 그러지 않으려거든 단숨에 죽여다오!”(O spare me, or dispatch me in a trice!)(5.5. 110)라며 유아의 항문 반항을 고집 하면서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에드워드 2세』에서 말로우의 가장 뛰어난 업적은 왕의 이러한 끔찍한 죽음으로부터 관객들의 동정심을 유발한 것이다. 에드워드는 동정적인 인물이다. 가학적 항문기에 있던 그는 자신의 초기 사디즘과 맞먹을 정도의 잔악함에 대한 고집스러운 인내에 담긴 자기학대(사디즘)의 요인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최후 죽음의 형태는 마조히즘의 성격을 띤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마조히즘은 주체 자아로 되돌아간 사디즘의 연장에 불과하며, 무엇보다도 성적 대상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It can often be shown that masochism is nothing more than an extension of sadism turned round upon the subject's own self, which thus...takes the place of the sexual object)(Surgal 191 재인용). 코멘솔리는 에드워드의 이러한 행위를 프로이트가 설명한 사도마조히스틱한 성향(sadomasochistic tendencies)으로 정의 내리는데 이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부터 나온 거세 공포에 들어가는 심리기제다(187). 프로서 또한 그의 마지막 죽음은 거세 공포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밝힌다(23). 결국 아버지의 법에 저항한 에드워드는 항문 사디즘을 비롯한 다양한 오이디푸스적 심리 파편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 한 인물이었으며 특히 이러한 그의 오이디푸스적 비극은 관객에게 충격과 동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III. 결 론

왕은 인간적인 몸과 정치적인 몸이 일체를 이룬 소유자이다. 이러한 왕의 두 몸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왕을 신성한 존재로 상정하며 한계가 있

는 인간으로는 파악하지 않았다. 특히 왕권의 절대적 권력을 지향하던 튜터 왕가의 입장에서 에드워드는 타자일 수밖에 없다. 에드워드는 나약한 인간적인 몸을 소유했을 뿐, 정치적 몸은 신성한 권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행동은 가부장의 거대한 담론인 아버지의 법으로부터 파생된 심리적 오이디푸스적 파편에 휘둘린다. 더욱이 그는 아버지의 법으로부터 자신의 독립을 주장하는 항문 가학증 단계에 집착한 영원한 아이인 셈이다. 그는 유아적 항문 반항의 인물에 어울릴만하다. 상상계로부터 상징계로의 이행에서 무의식으로 억압된 그의 심리기제를 살펴보면, 왕은 대리부인 귀족들의 억압적인 힘에 대해 초기의 독립과 자기주장을 펴는 데서 항문성격의 저항적인 특성, 보유 및 가학적인 면을 보게 된다. 더 나아가, 자기애라든가 과대망상증, 피해망상과 같은 항문성애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무의식적인 본능의 변형 징후와 더불어 거세공포로부터 나오는 마조히즘이나 자기애와 같은 퇴행적 증후를 보이기도 한다. 모든 증후는 거세불안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소외, 박탈감 내지는 신경증, 강박증과 같은 정신질환인 셈이다. 결국 상징질서로 귀속되지 않은 파편적인 충동이 무의식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에드워드의 병적인 무의식적 파편들로 인해 에드워드 왕의 정치적 몸의 실현이 불가능했음을 말로는 극에서 재현한 것이다. 넓은 의미에선 튜더왕조의 기조와는 다른 왕의 사적인 성애적 특성으로 야기된 왕의 두 몸 간의 차이를 재현했으며, 신성한 왕권의 회복이라든가 정의의 회복이 아닌 왕권의 탈신비화에 초점을 두었다. 왕권의 전통적 개념의 전복이라는 맥락에서 에드워드의 성적 정체성 또한 전복적이며 이런 결과로 빚어진 에드워드의 끔찍한 죽음을 지켜본 관객 또한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왕의 인간적인 몸에서 보게 된다. 에드워드의 몸에 새겨진 오이디푸스적 비극은 현대의 관객들에게도 울림이 큰 정체성의 문제라 생각한다.

인 용 문 헌

- Cantorowicz, Ernst H. *The King's Two Bodies: A Study in Medieval Political Theology*. Princeton: Princeton UP, 1981.
- Cheney, Patrick, editor. *The Cambridge Companion to Christopher Marlowe*. Cambridge: Cambridge UP, 2004.
- Cho, Jaehee. *Dr. Faustus* from the Perspective of a Transitional Period.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3 (2019): 225-39.
- Comensoli, Viviana. "Homophobia and the Regulation of Desire: A Psychoanalytic Reading of Marlowe's *Edward II*." *Journal of the History of Sexuality* 4.2 (1993): 175-200.
- Fischer Richard E and Juni Samuel. "Anality: A Theory of Eroticism and Characterology."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41.1 (1981): 57-71.
- Freud, Sigmund. 1908. "Character and Anal Eroticism." *S.E* 9 (1908): 167-75.
 _____. 1917. "Transformation of Instinct in Anal Eroticism." *S.E* 17 (1917): 125-33.
- Kang, Seok-joo. "Edward II: Homoeroticism and Political Desire" *English* 21 29.4 (2016): 5-32.
 [강석주. 『『에드워드 2세』 - 동성애와 정치적 욕망』. 『영어영문학 21』 29.4 (2016): 5-32.]
- Kim, Sung-whan. "Imperial Discourse in Marlowe's *Edward II*: Gender, Class, and Politics" *The journal of Classic and English Renaissance Literature* 20.1 (2011): 121-48.
 [김성환. 『『말로의 에드워드 2세』에 나타난 제국주의 담론: 성, 계급, 정치』 『고전 르네상스 영문학』 20.1 (2011): pp. 121-48.]
- Kuriyama, Constance B. *Hammer or Anvil: Psychological Patterns in Christopher Marlowe's Plays*. New Jersey: Rutgers UP, 1980.
- Marlowe, Christopher. *Edward the Second*. Trans. Kim Sung-whan, Seoul: Dongin, 2010.
 [크리스토퍼 말로. 『에드워드 2세』. 김성환 역. 도서출판 동인, 2010.]
- McAdam, Ian. *The Irony of Identity: Self and Imagination in the Drama of Christopher Marlowe*. Newark: U of Delaware P, 1999.
- Proser, Matthew N. "Edward's Perils: Masochism in Marlowe's *Suffering King*."

Literature and Psychology 34.1(1988): 17-25

Shepherd, Simon. *Marlowe and the Politics of Elizabethan Theatre*. New York: St. Martin's P, 1986.

Summers, Claude J. "Sex, Politics, and Self-Realization in *Edward II*." *A Poet and a Filthy Play-Maker: New Essays on Christopher Marlowe*, New York: AMS Press, 1988. 221-40.

Surgal, Jon. "The Rebel and Red-Hot Spit: Marlowe's *Edward II* as Anal-Sadistic Prototype." *American Imago* 61.2 (2004): 165-200.

Patti, Mitali R. "The Deranged Metaphor of the King's Body Politic in Marlowe's *Edward II*." *Explorations in Renaissance Culture* 20 (1994): 157-73.

akmabuin@hanmail.net

논문접수일: 2020. 3. 13 / 수정완료일: 2020. 11. 20 / 게재확정일: 2020. 11. 25

